



## 보도자료

배포일시

2025년 4월 15일 (화)

보도시점

배포 직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퍼스트바이오, 파킨슨병 신약 연구 글로벌 컨소시엄 참여

- 세계 최대 파킨슨병 연구재단과 함께 LRRK2 치료제 연구 가속화
- 개방형 연구 플랫폼 기반 세계 40여개 기관과 협력...파트너링 확대



주식회사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대표 김재은, 이하 퍼스트바이오)는 세계적인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연구 재단인 마이클 J. 폭스 재단(Michael J. Fox Foundation, 이하 MJFF)이 운영하는 LITE(LRRK2 Investigate Therapeutics Exchange) 컨소시엄에 참여한다고 15일 밝혔다.

MJFF는 파킨슨병 연구와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 재단으로, 2000년 설립 이후 약 20억 달러(USD)의 자금으로 전 세계 1,800개 이상의 연구 협력을 주도해왔다. 지난 해 구글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도 약 6,400만 달러를 기부하여 MJFF의 연구에 힘을 보탰다.

LITE는 현재 주목받고 있는 LRRK2 유전자를 중심으로 파킨슨병 치료제 및 바이오마커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LRRK2 연구의 권위자인 영국 던디 대학(University of Dundee) 다리오 알레시(Dario Alessi) 교수가 이끌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12개 이상의 기업과

30여개 이상의 연구기관 및 임상센터가 함께한다. GSK와 Biogen 등 신경퇴행성 질환 분야에 적극 투자하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어, 차세대 LRRK2 치료제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다양한 주체가 모인 만큼, LITE는 연구 협력과 개방형 과학(Open Science)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참여 기관들은 데이터 공유와 정기 회의를 통해 연구 성과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퍼스트바이오는 이미 수년전부터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제 개발을 주요 파이프라인으로 설정하여 LRRK2와 c-Abl을 타겟으로 하는 혁신신약 개발에 집중해 왔다. 퍼스트바이오는 이번 LITE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기존의 LRRK2 저해제와 차별화된 차세대 LRRK2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컨소시엄 내 다양한 참여 기관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파트너링 기회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퍼스트바이오 김재은 대표는 “LITE 컨소시엄 참여는 퍼스트바이오의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 분야의 연구역량과 신약 개발 가능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파킨슨병 치료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 글로벌 연구 그룹과 협력하며 치료제 개발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JFF의 약물발견 및 중개연구 부문 수석 부사장인 샬리니 마드마나반(Shalini Padmanabhan)은 “LRRK2는 유망한 치료 표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우리는 산업과 학계간 협력이 LRRK2 신약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 믿고 있다”며 “LITE가 이뤄낼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퍼스트바이오는 2016년 설립되어 퇴행성 뇌질환, 면역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선도적 바이오텍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파킨슨병 치료제 ‘FB-101’은 c-Abl 저해제로, 미국에서 임상 1상 단일용량상승시험(SAD)을 완료했다. 면역항암제 ‘FB849’ 역시 2023년 미국에서 첫 환자 투약을 시작으로 임상 1/2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MSD의 PD-1 항체 ‘키트루다’를 무상공급 받아 병용 투여 임상시험을 개시할 예정이다.

#### [마이클 제이 폭스 재단(MJFF)]

MJFF는 할리우드 배우 마이클 J. 폭스가 2000년에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 및 병의 완치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영화 백 투 더 퓨처(Back to the Future) 시리즈의 주인공인

폭스는 1991년에 자신이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후 이 질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치료법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 MJFF는 과학적 연구를 지원하며, 전 세계의 연구자, 기업, 환자 및 기부자와 협력하여 현재까지 약 20억 달러 이상을 연구에 투자했다. 특히, 파킨슨병과 관련된 생물학적 표지자, 임상시험, 그리고 유전적 이해를 통해 혁신적인 치료법 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